기초단체장도 중앙당서 공천할 듯

■민주당 지방선거 경선 방식 어떻게 하나

일부 전략공천 가능성…광역·기초의원은 시·도당 주관

민주당 통합과 혁신위원회와 지방선거 기획단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방식 도입을 놓고 매주 1회 이상 머리를 맞대며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어떠한 경선 방식을 도입하느냐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승리는 물론 나아가 정권 재창출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애초 이달 중순 마련될 전망이었던 지방선거 경선 방식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늦으면 새해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역단체장=광역단체장 경선의 경우, 중앙당이 직접 관리할 전망이다. 상징성이 크다는 점에서 전체 지방선거 구도에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의 안방인 호남의 경우, 한나라당의 공천 전략 등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가변성이 없지 않다.

일각에서는 3곳의 호남지역 광역단체장 경선에서 1곳 정도는 전략공천이 이뤄지지 않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광역단체장 경선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에 당원 및 대의원 여론조사를 보완한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대의원 및 진성 당원 여론조사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 부상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시민 배심원제, 모바일 경선, 전체 당원 투표제 등도 거론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기초단체장 경선=중앙당과 시·도당이 협의 아래 경선을 진행할 전망이다. 시·도당이 전체 기초단체장 경선을 모두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중앙당의 입장이다.

실제로 전남지역 22개에 이르는 기초단체장 경선을 전남도당이 모두 관리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부에서는 시·도당이 후보를 압축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당이 경선을 실시하거나 최종 심의를 통해 후보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선 방식은 광역단체장과 비슷하게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역적 상황에 맞춰 제한적으로 변동될 수도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중앙당의 전략공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광역 및 기초의원 경선=광역의원 경선의 경우, 시도당 주관으로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중앙당에서 경선을 관리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지역민과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경선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지만 의외로 시민 배심원제 등이 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초의원 경선의 경우, 지역위원장의 추천과 시도당의 검증, 여론조사 등이 병행해서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지역위원장의 추천과 시도당의 검증이 이뤄지고 여론조사 결과가 경쟁력이 있게 나올 경우 후보로 확정된다는 것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뜨거워지는 지구를 살리자" 15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도심에서 '돼지코' 모양을 붙인 시위자가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온실가스 양대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가 라운지

'도덕성 논란' 구희호 북구의장 의원직 사퇴

○…현직 구의회 의장이 농협 조합장에 당선돼 도덕성 논란과 함께 사퇴 압력을 받았던 광주 북구의회 구희호(57) 의장이 16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구 의장은 이날 열린 북구의회 제16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8년여 동안 몸담아온 의정 생활을 접고 북구의회를 떠나겠다"고 밝혔다.

북구의회는 구 의장의 사임 안건을 즉시 처리했으며 차기 의장은 오는 23일 3차 본회의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한편 구 의장은 지난 11일 의원직은 물론 의장직까지 유지하며 북광주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지방의회 의장이 이익단체 선거에 출마한 것을 두고 선거전부터 사퇴 요구를 받는 등 논란이 뜨거웠다.

조합장선거 부정 35건 적발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올해 전남지역에서 치러진 70개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3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고발 8건, 수사의뢰 10건, 경고 17건으로 대부분이 금품 제공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장성군과 무안군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남군·신안군 4건, 구례군·화순군 3건 등의 순이었다.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단속 결과 금품제공 등 아직도 고질적인 후진국형 선거부정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50여개의 조합장 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홍기월 동구의원 '의정대상'

○…광주 동구의회 홍기월 의원(민주·가 선거구)이 서울여성신문 등이 주는 '2009년도 의정대상'에 선정됐다.

지역사회발전 특별공로 부문 수상자인 홍 의원은 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장과 동부의용소방대장, 동구 축구연합회장, YMCA 운영위원 등을 맡아 지역사회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21일 서울 연우문화센터에서 열린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용섭 의원과 단일화 하겠다"

광주시장 경선 나선 전갑길 광산구청장

내년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전갑길 광주 광산구청장은 16일 "지지층과 지역이 겹치는 이용섭 의원과 경선과정에서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의원과는 가깝고 신뢰하는 사이로 함께 가야 할 사람"이라며 "지역구가 같은 광산인데다 지지층도 겹쳐 서로가 손해보고 있어 단일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두 후보 중 한 명으로 가는 것이 지지도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며 "일정 시기까지는 서로 열심히 한 뒤 성적표를 제출할 시점이 오면 기꺼이 제출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 청장은 "이에 대해 이 의원과 약속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는 거품이 많고 특정후보에 대한 반사이익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그러나 이같은 지지율이 2월까지 이어진다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1~2개월 내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밝혀 단일화 시기를 내년 2월 초께로 내다봤다.

전 청장은 "인지도와 지지도는 상관관계에 있다"며 "전체적인 지지도는 아직 뒤지지만 인지도 대비 지지도 비율은 가장 높은 만큼 21일 출판기념회를 기점으로 인지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젊으면서도 시의원과 국회의원 등 다양한 경험을 모범적으로 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 밑에서 정치수업을 받아 시장으로서도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이달 말 또는 내년 초에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구청장 사퇴 문제와 관련해 "국회의원과 달리 구청장은 사퇴하면 곧바로 업무 공백이 생긴다"며 "경선 때까지는 사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 청장은 오는 21일 오후 5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자서전 '함께 여는 힘찬 세상' 출판기념회를 연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보즈워스 방북 때 '오바마 친서' 전달

워싱턴포스트 "임기 초반에 보낸 건 이례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personal letter to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Il)를 지난주 방북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통해 전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이 15일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서한의 존재가 엄격히 비밀로 유지됐다면서 오바마 정부는 6자회담의 다른 참가국에 이 사실이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보즈워스 대표가 김정일에게 보내는 오바마 대통령의 서한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국무부와 백악관 관계자들이 이번 주 확인했다면서 다만 구체적 내용은 이들이 설명하기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마이크 해머 대변인은 "개인적 외교 서한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보즈워스 대표는 방북을 마친 뒤 서울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교묘하게 피해갔다.

보즈워스 대표는 10일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방북시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북측에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문제와 관련해서는 저 자신이 바로 메시지"라고 언급했고,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친서 전달을 부인한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에게 이렇게 임기 초반에 친서를 전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드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이 신문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도 김정일에게 편지를 결국 보냈지만, 북한의 핵 야심을 꺾기 위한 집중적인 외교적 노력을 펼친 뒤에나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를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조선중앙통신은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도했다면서 이는 아마도 오바마 대통령이 보낸 친서의 영향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또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주장하면서 미국은 단순히 북한이 회담을 다시 시작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철회하거나 다른 이득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오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中 차기 지도자 시진핑 방한

중국의 차기 지도자로 부상한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16일 한국에 도착했다.

개인적으로는 2005년 저장성 당서기 시절 방한한 적이 있지만 지난해 3월 부주석에 취임한 이후에는 이번이 첫 한국 방문이다.

또 중국 국가부주석의 방한으로서는 1998년 4월 당시 후진타오 부주석의 방한 이래 11년 만이다.

시 부주석은 50여명의 수행원과 함께 이날 밤 전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오는 28일 현지부임 예정인 류우익 주중대사의 영접을 받고 숙소인 서울 시내 호텔로 이동했다.

17일에는 청와대로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 조찬을 함께 하며 북핵 문제를 비롯한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어 김형오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정운찬 국무총리와 회담에 이어 만찬을 함께 한다. /연합뉴스